

갈대상자 소식지

한동인

새내기가 한동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만든 떡 통해 설렘이 느껴졌으면

Why Not Change the World?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인도 낙타섬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한동 소식

사랑하고 늘 보고 싶은 한동인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 합니다

함께 엮는 갈대상자

돌아온 딸을 향해 달려와 주신 하나님
편지에 묻어낸 사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눅 6장 38절]

갈대상자 소식지 2013년 제 43호

발행처 : 한동대 대외협력팀

갈대상자 소식지 전자우편

: sarang@handong.edu

글_ 차형진, 오혜민, 성연태, 한경석

디자인_ 박지은

일러스트_ 최혜진

사진_ 허두석

도움주신 분_ 손일영

CONTENTS

한동인

새내기가 한동을 만났을 때	06
한동의 국제화에 역사하신 하나님	08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그리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10
사진, 사람, 사랑을 담아내고 싶어요	12
“우리가 만든 떡 통해 설렘이 느껴졌으면”	14

Why Not Change the World?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18
학생들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20
폐교하는 것이 소망인 학교	23
사랑이 흐르고 흘러	26
인도 낙타섬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28
“하나님이 주신 자연, 더 아름답게 지켜나가요”	30

한동 소식

34	사랑하고 늘 보고 싶은 한동인들에게
38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42	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 합니다
44	한동에 온 선물, '나눔평봉필드' 개장
46	사회에 나가계신 선배님이 매주 찾아오는 수업이 있다고?
48	기부에서 얻은 가치
50	'정직'을 지켜주세요
52	글로벌 리더가 따로 있나요?

함께 엮는 갈대상자

55	돌아온 딸을 향해 달려와 주신 하나님
58	편지에 묻어난 사랑

한동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한동인의 삶을 엿보는 공간.
이번에는 어떤 한동인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을까요?”



새내기가 한동을 만났을 때

12학년 정명철 새내기의 꾸밈없는 하루

한동에서는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보낼까요?
다 대학과는 구별된 생활을 한다는 한동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의 모습. 올 해 한동에 새롭게 들어온 정명철(GLS 12) 새내기의 하루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6시

여느 때처럼 명철이는 알람에 눈을 비비고 일어납니다. 얼굴을 씻기도 전에 큐티 책을 들고 휴게실로 뛰벌 걸어가는 명철이. 시편 2편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아침 8시

명철이는 세수를 하고 한동에서 만난 신앙공동체를 통해 알게 된 누나와 아침식사를 하러 학생식당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한동의 신앙공동체는 명철이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공동체입니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룹 모임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자 모였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 30분

명철이는 2교시 '통계학' 강의를 듣기 위해 도서관

에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의 '팀 제도'를 통해 만나게 된 새내기 누나와 함께 듣는 수업이라고 명철이가 말합니다. 팀 제도를 통해서, 명철이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명철이는 함께 수업도 듣고, 힘들 때 위로를 주고 받는 등 함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11시 30분, 3교시

명철이의 팀 새내기들 전부와 같이 기독교 교양과목을 듣는 시간입니다. 팀 새내기들이 맨 앞줄에 앉아서 '삼위 일체론'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군요.

12시 45분, 점심시간

명철이는 같은 팀 새내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학교 내 '히즈빈스' 카페에 가고 있습니다. 히즈빈스는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생겨난 카페로, 명철이는 매우 맛있게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히즈빈스에 들어가자마자 카운터에 계신 분이 따뜻한 인사를 명철이에게 건네는군요.

2시 15분, 5교시

5교시는 명철이가 '미분방정식과 응용'이라는 수

학과목을 영어로 듣는 시간입니다. 영어강의라서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명철이. 영어로 수업하는 한동대의 글로벌화 비전에 부합하기 위해 영어공부를 해야겠다고 명철이는 다짐합니다. 다행히도 명철이는 수식을 통해 수학적인 내용을 모두 이해했다고 하는군요.

오후 4시

명철이는 응원단 연습을 하러 연습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주 토요일에 있는 4개 대학 축구리그에 응원할 안무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 새로 생긴 '한동응원단'의 팀원으로 들어간 명철이. 한동응원단은 경기할 동안 관중의 행사 참여를 유도하여 한동을 하나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철이가 말했습니다. 이 후 응원 연습이 끝나고 응원단 사람들과 식당에서 쫄면조림이 나온 한식을 먹으며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녁 7시

명철이는 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있는 신앙공동체 예배에 참석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포항의 한 교회를 섬기시는 부목사님께서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님'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명철이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얻은 시간"이라고 고백하는군요.

밤 10시 30분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명철이는 매점을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주스를 싸게 판매해서 사왔다는 명철



이. 토마토 주스를 마시며 공부를 하다가 명철이가 SNS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써서 올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명철이는 자정이 되어서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동에서 새내기의 하루는, 사람마다 색깔이 다르지만 한동에서의 여러 공동체와 팀 제도, 신앙과 영어를 기초로 하는 수업과, 예배 등을 통해서 하루하루 성숙해나가고 있습니다. 새내기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명철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 SNS 페이스북에 쓴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자기 토마토 주스 좋아하시는 엄마 생각이 난다. 자식들 먹이려고 피, 땀 흘려 일하시면서, 자식들에게 힘든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엄마. 엄마의 그런 모습이 언제부터인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한동대로 떠난 것 같다. 매번 잘해야지 잘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된다. 도대체 언제쯤에 나는 진정으로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게 될까?"

한동의 국제화에 역사하신 하나님

국제화 부총장으로 부임한 최도성 교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와 한동대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번 학기 학교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서울대 교수,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지금은 한동대에 새로 생긴 국제개발대학원의 교수님으로 그리고 국제화 부총장으로 섬기시고 계신 최도성 교수님입니다. 최도성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교수님의 비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Q. 한동대를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저는 공채도 특채도 아닌 한동대 졸업생들의 추천으로 오게 되었어요. (웃음) 제가 12년도 초기에 금융통합위원회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다른 많은 곳에서 추천이 들어왔죠. 하지만 특별히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던 한동대 졸업생이 찾아와서 한동대 교수로 오시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그 후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총장님께 직접 연락이 왔어요. 알고 보니 여러 졸업생들이 총장님께 메일과 편지를 써서 저를 추천하는 글을 썼고, 이를 읽어보신 총장님께서 연락을 주신 거였더군요.

Q. 한동대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한동대를 처음 직접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무슨 대학일까 하고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있는 'Why not change the world?' 라는 문구를 보고 특별한 마음이 들었죠. 이 한동대 학생들은 타 대학과 다른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구나 하는 마음 말이에요. 자신의 안일을 제쳐두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할을 하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를 제안 받은 것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죠. 이 학생들이 참 귀하게 느껴졌고,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의 자리를 받아들였고, 지금 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롭습니다.

Q.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학기 새로 생긴 국제개발대학원 교수와 국제화 부총장으로 있습니다. 그 중 특별히 KOICA를 통해 한동대에 들어온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KOICA를 통해 한국에 1년 넘게 머무르면서 다양한 교육들을 받고 다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그곳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죠. 처음에 저는 국제개발 관련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미리 준비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융통합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많은 시간 동안 가난과 질병, 양극화 등의 논문과 보고서를 읽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하면서 배운 경험들이 알고 보니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드렸어요. 총장님 말씀대로 '공부해서 남주자'는 것을 실천하여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비전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한동대와 KOICA가 연계하여 교육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는 우연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공무원들이 한동에 있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며 직,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KOICA와 연계한 교육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뿐만 아니라, 한동대의 학생들에 대한 비전도 있어요. 한동대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한국 땅은 너무 작다고 생각해요. 'Why not change the world?' 라는 문구처럼, 한동대 학생들이 전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도와줄 것입니다. 한동대 학생들은 세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재를 키운다는 생각에 감사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그리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YG 엔터테인먼트 디자인팀 실장 96학번 장성은 졸업생

“배워서 남 주자는 것을 재학 내내 배워서인지, 엔터테인먼트 업계 디자이너인데도 나만의 노하우를 여기저기 잘 알려줘요. 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니까요.”

여러 분야에 졸업생들이 진출하고 있지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진출한 동문들은 몇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싸이, 빅뱅, 2NE1 등 유명가수들이 소속된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디자인팀 실장을 맡고 있는 장성은 동문(96)을 만나보았습니다. 장성은 동문은 현재 YG 소속 가수들의 앨범이나 포스터, 스타 상품 등을 제작하며 콘서트 때가 되면 부스 디자인 등을 하는 등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이은종 교수님의 소개로 지직(GIGIC)이라는 회사에 있었다고 합니다. 디자인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기독교 회사였습니다. 매일 QT도 하며 예배도 드리면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일했죠. 그러다 기독교 회사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이곳 저곳에 심겨져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씨인들을 발견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실까, 늘 스스로 점검해요. 저 같은 경우, 그런 것이 ‘디자인’ 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디자인도 날 위해 내려놓을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망설임 없이 ‘네’ 하며 대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0년간 있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DTS 선교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로 했죠.”

하지만 장성은 동문이 회사를 그만두며 계획했던 DTS 선교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억누르며 주님께 순종하려 달려갔지만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을 알겠더라’ 선교 프로그램의 길을 다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지요.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맴도는 회사는 아니에요. 오히려 엔터테인먼트 업계라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하죠. 문화적 사역이 쓰임을 받는 이 때에, 한 사람



의 바로 서는 엔터테이너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내 소속 가수들과 성경공부 모임을 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크리스천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겠지요.”

대학 이전엔 디자인에 관심도 없던 장성은 동문은, 산업정보디자인학부에서 배웠던 가르침들을 지금도 생각하곤 한다고 합니다.

“이진구 교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 디자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냉철한 머리로 디자인하라며, ‘Cool head, warm heart’를 항상 말씀하셨죠. 이은종 교수님께서서는, 제가 있던 예전 회사에 종종 방문하실 때마다 성경 특

강을 해주시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죠. 실제 일을 하면서는 조원철 교수님 말씀도 많이 생각나요. 신앙적인 것과 디자인을 어떻게 함께 가져갈 것인지 항상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장성은 동문은 앨범 자켓 디자인을 하며 성경 말씀을 넣는 등 신앙적인 상징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선한 영향력’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만드는 문화 속에, 밝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은 오늘의 나무를 심듯,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모든 크리스천의 과제가 아닐까요. 어떤 형태가 되든 하나님께서 사용해주실 수 있겠어요.”

사진, 사람, 사랑을 담아내고 싶어요

시사저널 대학언론상 대상 이윤청 학우를 만나다

한동대학교 이윤청(언론정보 09) 학우는 일상의 순간순간을 사진으로 담아내기 위해 오늘도 셔터를 누릅니다.

지난 8월 이윤청 학우는 주간언론사 시사저널에서 주최하는 제1회 시사저널 대학언론상 사진보도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취재보도부문과 사진보도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 '시사저널 대학언론상'은 예비언론인의 참여의 장을 제공하고, 대학생의 시선을 담아내고자 올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사진보도 부문에서 거리의 노숙자들의 삶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아낸 <거리의 영혼들>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출품한 이윤청 학생은 감성적인 면뿐만 아니라 노숙자의 이픔까지 담아내 사진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촬영자의 의지가 돋보였다는 심사위원의 극찬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년 미주 중앙일보 인턴기사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매일 출퇴근하면서 항상 그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숙자 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물론



처음부터 노숙자 분들의 사진을 많이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일상생활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저도 모르게 노숙자 분들의 사진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그때부터 노숙자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포토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노숙자를 대상으로 포토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된 계기를 말하는 이윤청 학우의 눈에는 빛이 났습니다. 힘들지는 않았냐는 질문에는 손사래를 치며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물론 다가가는 노숙

자 분마다 환대는 받지는 못했지만, 그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더욱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언젠가 사람을 주제로 한 포토다큐멘터리 전시회를 여는 게 제 꿈입니다. 저는 사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에 강하게 긍정하지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이지, 말처럼 쉽게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길게, 오랫동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제 사진을 보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움직여, 세상이 차츰차츰 따뜻한 곳으로 변화한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을 거예요."

사진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동안 이윤청 학우의 입가엔 미소가 가득히 퍼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떡 통해 설렘이 느껴졌으면”

통일을 꿈꾸는 새터민의 일터, ‘꿈꾸는 떡, 설레’

매일 아침, 한동의 매점과 카페에는 아주 특별한 떡이 공급됩니다. ‘꿈꾸는 떡, 설레’라는 이름을 가진 이 떡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정착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전하는 ‘꿈꾸는 떡, 설레’의 대표 손승리(경영경제 06) 학우를 만나보았습니다.

Q. 독특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설레,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나요?

설레는 2010년 7월, 한동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주향기내는 사람들’에 속한 ‘손을 모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오랫동안 ‘새터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 남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 특히 일자리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떡’이라는 아이템은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남북 모두의 정서에 익숙하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먹거리가 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필요하



지만 그 기술을 습득하거나 응용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나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요. 그래서 떡을 만드는 이들에게도, 그 떡을 먹는 이들에게도 ‘통일’을 바라보며 설레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Q. 설레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있나요?

현재 정식으로 고용되신 새터민은 한 분입니다. 2010년 11월, 이 분과 고용노동계약을 쓰는 내내, 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향후 설레를 책임지고 이끌어가기 위해 생산현장에서 기술과 공정을 열심히 배우고 계십니다. 통일을 맞이하는 시대에 새터민의 리더가 되겠다는 포부로 새벽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계시고, 근무가 끝난 후에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감사하고 든든한 분이시죠. 그 외에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직원들이 경영팀, 복지팀으로 나뉘어 새터민분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사업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Q. 사업을 구상하실 때와 실제 사업을 해본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처음에는 단순하게도 떡을 많이 팔아서 많은 수익을 얻고 이것을 적절하게 분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새터민과 일을 하면서 단순히 판매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새터민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함께 고민하려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물질적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사업의 방향을 의논하는 과정은 이 사업의 주체가 새터민이라는 것을 매번 각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Q. 앞으로 설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까지 설레는 떡을 유통하는 사업만을 담당해 왔습니다. 비전을 같이하면서 뛰어난 기술을 가진 방앗간과 연계해 생산 및 기술 교육을 진행하였지요. 그런데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더 많은 새터민을 고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체적인

생산시설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학교 내 창업보육센터의 공장동에 입주할 준비 중이며 올해 말까지 입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기존 방앗간은 폐쇄적, 재래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청결하고 열려있는, 음악과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생산시설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Q. 앞으로 설레를 향한 소망을 독자들에게 나누어주세요.

‘꿈꾸는 떡, 설레’는 새터민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초석입니다.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모델을 설레가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함께 일을 해나가고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해나가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남북이 하나될 때 새터민들이 리더로 서게 될 것을 꿈꾸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손승리 학우는 ‘꿈꾸는 떡, 설레’ 활동을 통해 ‘2012 대한민국 인재상’에 선정돼 대통령 상과 메달을 수상하고 상금으로 받은 100만원 전액을 새터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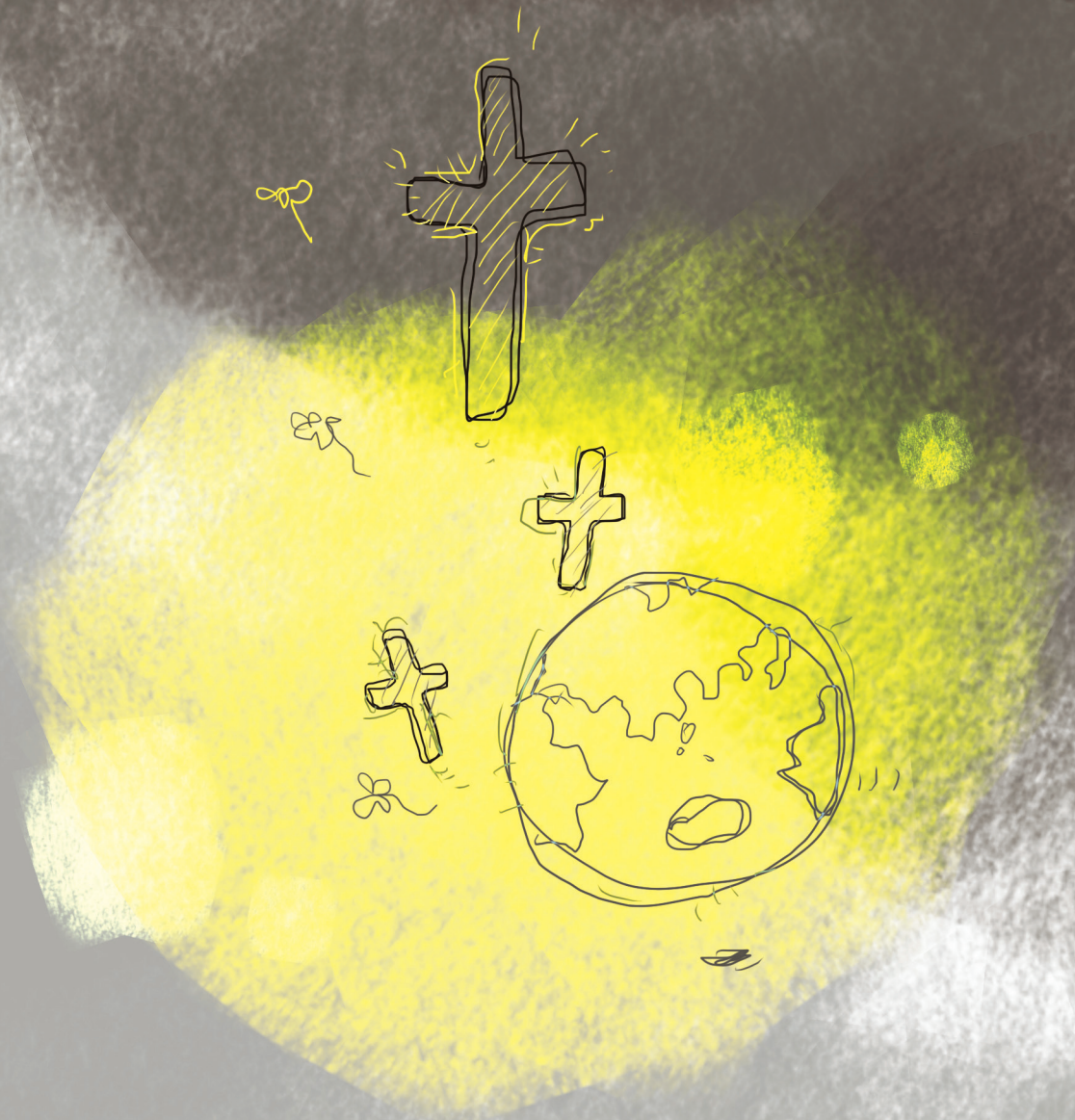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21세기 글로벌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장려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주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한동에 모였습니다. 한동의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이곳에서 풀어봅니다.

”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사법고시 ·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법학도들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 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삶의 몫이라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대 법학부 학생들, 그리고 국제법률대학원(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학생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한 결실을 통해 기쁜 소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법학부, 2012 사법고시 2명 합격

지난 11월 21일 발표된 제54회 사법고시 최종 합격자 명단에는 한동대학교 학생 2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도용민(01) 동문과 조유란(06) 동문입니다. 이로써 한동대는 2007년 4명, 2008년 1명, 2010년 3명, 2012년 2명으로 개교 이래 총 10명의 사법고시 합격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결실을 맺은 두 동문이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도용민 동문은 20대를 신림동에서 보내고 서른이 되어야야 떠날 수 있게 되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위로가 되신 주님께, 그동안 기도도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린다”는 소감을

밝히며, “자신의 소망을 위해 인내와 연단의 과정에 있는 모든 한동인들을 응원하고 사랑합니다”라며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유란 동문 또한 “모든 준비 과정을 도와준 가족들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 목표를 향해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세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법조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동문이 법학부에서 늘 배웠던 것처럼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러 보낼 수 있기를, 한동에서 늘 강조했던 것처럼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법조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국제법률대학원 졸업생, 美변호사 시험 11명 합격

한편 지난 7월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주에서 실시된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는,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졸업생 11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2월 치러진 워싱턴 D.C. 시험에서도 22명,

알리바마 시험에서도 12명이나 합격했기에, 올 한 해만 총 45명의 미국 변호사를 배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올 한해 워싱턴 D.C.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졸업생들은 89%의 합격률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는 미국 로스쿨의 합격률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 교육과정 수료만으로도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릭 엔로우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원장은 “최근 우리 졸업생의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우리 졸업생의 학문적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미 변호사로 활동중인 졸업생들의 평가도 우수하여 법률시장에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국제법률대학원 졸업생은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의 약 70%인 198명이 미국 워싱턴 D.C., 알라바마, 테네시, 미주리, 뉴욕, 캘리포니아, 버지니아주 등에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해 국내의 법률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뉴질랜드, 호주에서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활동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세계 각지에서 노력하는 졸업생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학생들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한동 UN ASPIRE Korea, 해외봉사이야기

한동대에는 UN의 새천년 개발 목표, MDGs*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고등교육 지도자들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Sharing a culture of intellectual social responsibility)'을 달성하기 위해 발족된 자발적인 학생단체인 UN ASPIRE* Association Korea의 본부가 있습니다. 현재 UNAI ASPIRE는 UNAI가 지정한 10개의 HUB대학이 전 세계에 걸쳐 나뉘져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연합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 나라, 혹은 각 지역에 ASPIRE Association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배워서 남 주자', 배우고 섬기는 ASPIRE

지난 여름 ASPIRE Association Korea는 필리핀 마닐라의 빈민층을 대상으로 'Care-Stick'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오랜 쓰레기 더미에서의 생활로 위생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Care-Stick' 프로그램은 그곳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치아위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 착안하여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구강질환은 단순히 치



아와 치주의 질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통이나 심지어 뇌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으로써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UN ASPIRE Association Korea는 그 곳에서 구할 수 있는 나뭇잎을 활용한 칫솔을 개발하여 나눠주고 치아위생의 중요성을 알리는 봉사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만 아니라 현지 마닐라 대학교와 연계해 앞으로의 협력을 논의하여 이번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SPIRE Association Korea는 앞으로 다각도의 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해 먼저, 한동대의 김순권박사님의 옥수수 농장에 리서치를 다녀왔습니다. 중국 위치한 옥수수농장에서 개발 중인 슈퍼 콘(Super corn) 기술을 리서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슈퍼 콘이 개도국에서 식량으로써, 혹은 자원

ASPIRE Association Korea가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많은 한국 대학생들은 국제개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제개발에 대해 관심을 갖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한국 대학생들의 현실이 이해가 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쉽지만 합니다. 물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자기 삶의 일이 작다고 간과할 순 없지만 빈곤이나 내전 등 글로벌 이슈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동대의 '배워서 남 주자' 라는 슬로건처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제개발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교하는 것이 소망인 학교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자유학교’

‘청소년 자유학교’는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대안학교로, 2001년 개교 이후 계속해서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을 무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을 받아 가르치는 검정고시반, 경상북도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자유학교에 교육을 위탁하는 위탁교육반, 현재는 이렇게 두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교의 세 사람을 만나 자유학교의 이모저모를 알아보았습니다.

1년차 선생님, 김지현 학우

매주 월요일이 되면, 김지현 학우(국제어문 09)의 마음은 이미 자유학교에 있습니다. 다음 날 있을 수업을 위해 밤을 새며 준비를 하다 보면 벌써 마음이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이번 학기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지현 학우의 고민은 영어에 대한 학생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는 영어 단어를 최대한 써보라고 했어요. 유행하는 가요의 가사에서 나오는 영어 단어나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버스’, ‘주스’ 도 다 영어라고 했더니 의외로 아는 단어가 많으며 즐거워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나네요.”

김지현 학우는 ‘한동에 있으면서 자신이 받았던 것들을 다시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해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 자유학교’였다고 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좋은 교육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어떻게 되길 바란다는 것 없이, 그저 학생들 그 자체에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어느새 수줍음을 벗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아이들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가 전달되고 있구나 느끼죠.”

학생들이 자유학교를 통해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김지현 학우. 수업을 마칠 때면 하나님께서 순전한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며 더욱 수업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매주 화요일 새벽녘, 세계 지도 하나하나를 가위로 자르며 그 위에 나라 이름을 영어로 쓰는 김지현 학우. 그 새벽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은 아마 학생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 열정이 아닐까요.



-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약자로 UN총회에서 2000년 9월 만든, ‘새천년 개발 목표’이다.
- UNAI ASPIRE: “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 Action by Student to Promote Innovation and Reform through Education”의 약자로 유엔과 전 세계대학들이 빈곤 등의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국제포럼에,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4년차 선생님, 정다이 학우

한 때, 청소년들이 비전을 찾을 수 있게 강연하는 것이 꿈이었다던 정다이 학우(법 09)는 자유학교에서 그 꿈을 마음껏 펼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청소년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었죠. 그러면서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말썽 부리는 아이들이 온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피상적으로 아이들을 아는 것보다 직접 같이 살면서 배워보고 느껴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요.” 1학년 때부터 자유학교 교사를 시작한 정다이 학우는 4학년이 된 지금 벌써 4년차 교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하며 자신만의 수업을 그리던 1년차 선생님이 어느덧 자유학교를 운영하는 교무부장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평교사를 하며 수업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보직교사를 하며 학교를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더 많은 아이들을 알게 되면서 자유학교에 대해 더 큰 소속감과 애착을 갖게 되죠.”

정다이 학우는 4년 동안 교사를 해오면서 아이들에게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교사가 되었다고 매번 다짐한다고 합니다.

“동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바람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지 몰라도 크게 보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득이거든요.”

20년차 교장 선생님, 김윤규 교수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요? 나는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학을 다닐 때 야학에서 교사로 활동했는데, 그 야학의 교장 선생님이 교수님이자 장로님이셨죠. 그분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분과 같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글로벌리더십학부 김윤규 교수님은 ‘청소년 자유학교’를 세운 계기를 회상하며 입가에 웃음을 띠십니다.

“그 소망을 잊고 살다가 교수가 되니 문득 다시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한동에까지 끌고 오셨다는 생각을 하니 당장 그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요즘은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보다 방황하는 청소년이 더 많더라고요. 사회는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고, 학교는 아이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죠. 어디에서도 아이들을 관리하거나 바라봐주지 않았어요.”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이후, 교수님은 동역자들과 함께 1년 여 넘게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만들어진 학교였기에 지금도 그 당시의 생각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20년째 지켜져 오는 자유학교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한 명만 있어도 개교하고, 한 명만 있어도 폐교하지 않는다.’ 개교 당시 4명이던 학생은 현재 40여 명으로 늘었고, 교사는 70명에 달합니다. 한동대 자원봉사자들

로 이루어진 70명의 교사는 공식적으로는 ‘무자격’이지만, 어떤 교사보다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정·학교·사회가 포기한 이 청소년들은 최근 검정고시 응시생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자유학교 교사들도 다 학생이니까, 교사들에 대한 애정도 크죠. 야학 교사를 할 당시 내게 변화가 일어난 것과 동일한 변화가 한동 학생들에게, 나아가 청소년들에게도 있었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자유학교의 소망을 묻는 질문에 김윤규 교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십니다. “자유학교의 소망은 폐교하는 것이죠. 방황하는 아이들이 없어져서 감사 기도로 폐교하는 것이 개교할 때부터 소망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면, 자유학교의 새끼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자유학교 선생님들이 각자 사회에 나아가 학교를 세운 것이 벌써 세 개나 되는 걸요.”

자유학교에 온 이유도, 하는 일도 각각 다르지만 이곳의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은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을 알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은 오늘도 흐르고 흘러서 아이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날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흐르고 흘러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선배들의 자발적인 '만원의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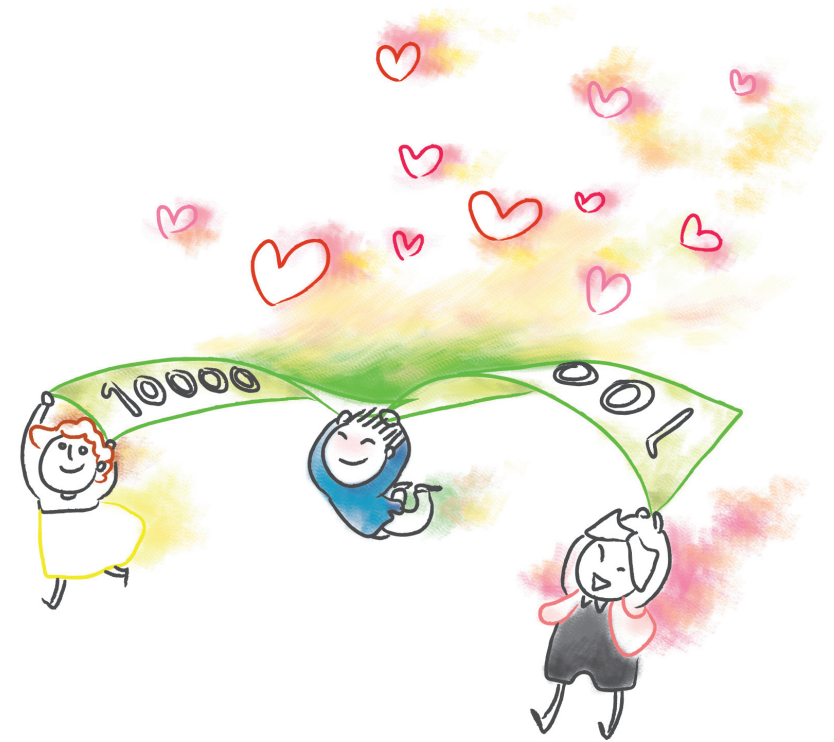
공간환경시스템 공학부(이하 공시)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자 모인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만원의 사랑' 이 그 주인공입니다. '만원의 사랑' 은 공시의 졸업한 선배들이 한 달에 만원씩 돈을 모아서 후배들의 여러 학업에 도움을 주는 모임입니다.

'만원의 사랑' 은 지난 2011년 공시 졸업생 선배들이 후배들의 졸업전시회에 모였다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약 20명의 선배들이 이 생각을 구체화하던 중, "한 달에 만원씩이라도 모아서 장학금을 주자" 라고 마음을 모았고 1년 뒤인 이번 가을학기에 그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가을학기 초, 공시 SNS 페이스북에는 "공시학생들의 프로젝트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는 내용의 공모글이 올라왔고 학생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공시는 건축, 토목, 도시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부로, 모델 재료, 타 지역 경험, 기계 장비 등의 재정이 필요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 학부였기 때문입니다.

이 공모글을 본 공시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총 세 개의 팀이 공모에 참가했습니다. 세 팀은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에 관한 세미나열기, 한동대 '기숙사 단열성능 연구' 팀, 뉴턴홀 2층 '로비 디자인' 팀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원하였습니다.

처음 '만원의 사랑' 공모에서는 1등과 2등, 3등을 구분하여 장학금액의 차별화를 두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개의 프로젝트를 집계 하면서, 선배들은 "후배들을 평가하는 모임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고, 세 팀 모두에게 예산을 공정하게 나누어 지원하였습니다.



가을학기가 지나면서 각각의 세 팀은 선배들의 장학금으로 세미나, 로비디자인, 단열 연구 발표 등의 결과를 내었고, 이 결과를 공시의 학생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배들은 "후배들의 열정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고 말했고, 후배들은 "선배님들 덕분에 잘 해 낼 수 있었다" 며 덕담이 오갔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서 선배로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선배들이 더 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글로 남겼습니다. 공시 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이용원(00) 동문은 "후에는 더 많은 선배들이 참여해서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고 말하며 더 풍족한 내리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선배의 내리사랑이 흘러 흘러 학생들의 교육에 보탬이 되고, 내리사랑을 받은 학생들이 더 잘되어 또 다음 학생들에게 내리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동의 내리사랑으로 선한 순환이 이루어져서 '이웃을 위한 공간환경설계' 를 할 수 있는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도 낙타섬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한동대만의 세상 바꾸기, 수질개선 프로젝트

세상을 바꾸는 용기를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한동대 그린적정기술연구협력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질개선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하는 GEM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질개선 프로젝트 팀'은 GLS학부의 황철원 지도교수와 황현규(생명과학 10) 학우를 포함한 9명의 학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 비하르주의 낙타섬의 주민들을 위해 진행 중이며, 현지인들이 직접 물을 정화해서 마실 수 있는 '적정기술필터'를 이용해 낙타섬 주민들의 질병 문제,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낙타섬의 주민들은 '수인성 전염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고 황현규 학우가 말했습니다.

“수인성 질병의 이환율을 낮출 뿐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순환구조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황현규 학우는 손을 모아 기대하듯 말했습니다. '수질개선 프로젝트'는 단순한 일회성의 봉사가 아니라, 2년이 넘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교육, 경제, 위생 등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선한 경제 구조를 만들며 '낙타섬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황현규 학우는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현재 '수질개선 프로젝트'는 시범 보급단계입니다. 작년에는 만든 수질 정화 모델을 만들어서 낙타섬에 적용하였고, 올해는 1차 모델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후, 이 모델을 완전히 보급하여 생산라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황현규 학우는 '수질개선 프로젝트'로 인한 경험을 토대로 '전국 해외봉사 공모전'에 응모하여 'KOICA 이사장상'을 수상하여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인도 낙타섬을 가기 위해 준비 중이었지만, 재정이 넉넉지 못했어요. 하지만 때마침 상금을 받게 되어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황현규 학우는 말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질개선에 필요한 많은 학술적 연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국내 유명한 전문가들과 연결이 되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황현규 학우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들과도 연결이 되어 개인과 팀원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다고 황현규 학우는 말합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황현규 학우. 그리고 한동인이 모여서 자신의 능력과 지식에 사랑을 더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용기를 보여준 팀원들. 인도의 낙타섬 뿐만 아니라, 인도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GEM 사업: Global Engagement & Mobilization의 약자로, 전공을 활용하여 해외의 사회적 약자를 섬김으로써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추구하는 전인격적인 프로그램 및 사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더 아름답게 지켜나가요”

한동인들의 일일 환경미화원 체험기

A.M. 04:30

아직 어두움이 가시지 않은 새벽. 어느 때와는 달리 버스정류장은 꽤 많은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몇 대에 차에 나누어 탄 150명의 학생들은 오늘 하루, 환경미화원 체험을 할 이들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차에 타면서부터, 환경미화원의 노고가 느껴지는 듯한 표정들입니다. 황철원 교수님의 따뜻한 기도로 오늘의 체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더 아름답게 지켜나가기 위해, 오늘 체험이 소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A.M. 05:30

포항시 환경미화원 복지회관에 도착한 학생들은 아직도 피곤하기만 합니다. 청소과 감독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을 환영해주시며 안전 교육을 진행하십니다. 학생들은 그제야 잠이 깬 듯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합니다. 이후 업무를 배정받은 학생들은 이제까지 붙어있던 친구들과 헤어져 환경미화원 선생님들을 따라갑니다. 웬일인지 학생들의 표정이 참 밝습니다.

A.M. 06:10

박성경 학우(언론정보 09)가 배정받은 곳은 포항 이동 지역이었습니다. 배정된 거리에서 환경미화 작업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서툴지만 환경미화원 선생님을 따라 부지런히 쓰레기를 줍고 손길들을 돕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을 보는 기분이에요. 활동을 하다 보니 교수님께서 이 활동을 하자고 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우리가 잠들어 있을 새벽에 이분들께서 얼마나 감사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미처 알지 못했거든요.”

같은 시각, 이나경 학우(언론정보 09)는 육거리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차에 타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함께 배정받은 환경미화원 선생님들이 같은 또래라서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 또래의 환경미화원들이 새벽부터 쓰레기를 치우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보며, 내가 이 직업에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일을 하는 이 중요한 사람들을 대하는 내 자신의 마음가짐부터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A.M. 08:30

각자 흩어져서 활동하던 학생들은, 다시 모여 포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그리고 다시 호동매립장으로 이동하며 하수, 생활 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고 배웁니다. 권나연 학우(GLS 12)는 “무심코 물을 쓰고 쓰레기를 버려왔었는데, 여기서 직접 누군가의 손을 통해 처리되는 과정을 보니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환경미화원 체험은 개교 때부터 매 학기 열리는 <환경과 인간> 수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담당 교수님인 황철원 교수님은 “오늘날 인간 중심의 잘못된 세계관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 고 말씀하시며,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 본인들의 일상 생활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연을 지켜나가는 청지기적인 자연관을 기르기를 소망한다” 고 덧붙이셨습니다. 힘이 닿는 한 계속해서 이 체험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 말씀하시는 교수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한동은 뭐하냐

“한동의 울타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한동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늘 보고 싶은 한동인들에게

졸업생들을 향한, 김영길 총장님의 카드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총장 김영길입니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벌써 한동이 개교한지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8천여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 한동인들은 글로벌 무대로 진출했고 또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동은 개교할때 World transforming, God centered, Love motivated 대학으로써 전세계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 목표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동의 무대는 온 세계입니다. 이제 2013년을 맞이합니다. 2013년 한동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여 또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Jump Up을 해야 합니다. 그런 무대로써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UN이 한동대학교를 UN Academic Impact(UNAI), Global Hub for Capacity Building in Higher Education System으로 선정하여, UN이 정한 TOP 10의 UNAI Global HUB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내에서 UNAI Korea의 본부를 이곳 한동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무대를 한동에 배치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가 우리가 활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협력해 전세계로 나아가, 한동이 다시금 글로벌 무대에서 넘버원이 되는 유니크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 무대에서, 전 사회에서 어려움이 많죠. 참으십시오. 주님처럼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해주시고 그 축복의 때에 한동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주님의 나라가 더 넓혀지는 큰 역사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김영길 총장 동영상 인사말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서 [QR코드 앱]을
이용하여 상기에 올려두시면
김영길 총장님 동영상 인사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I Love you, God Loves you! Thank you very very much.

2012.12.24.

한동대학교 총장 김영길

김영길 총장님께 도착한 학생들의 답장

총장님. 졸업생입니다. 졸업하고 나서야 한동의 사랑을 더 그리워합니다.

저는 04학번 공간환경시스템학부에서 건축과 도시를 공부했던 박OO이라고 합니다.

재학중일 때는 학교의 관점에서 보면 소위 '아웃사이드' 라고 불렸던 부류에 속했던 학생입니다. 학교의 부정적인 것들만 보고, 저의 미래만을 바라봤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 낸 학생 개개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만 무성한 학교라고 자평하며, 저를 안 좋게 보는 시각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회복해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졸업해서 이 지긋지긋한 학교 떠나버리고 싶다' 라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08년도 졸업한 후에 장교로 복무하며 3년 여의 시간을 보내고, 전역 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지금, 저는 한동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신앙과 인성 모두 한 없이 부족하고 나약했던 절 위해 이른 아침 QT로 하루를 함께 시작해 주던 방들이 들... 이성 문제, 가정 문제로 가슴 아파할 때 저를 위해 소중한 오피스 아워를 허락해 주셨던 교수님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저희를 위해 'God is good, All the time!' 을 외쳐주시던 총장님... 학창 시절의 소중한 경험들을 졸업하고 나서야 끄집어내며,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신앙이나 학업적인 측면에서 진솔하지 못했던 저의 학창시절을 반성하며, 그래도 항상 사랑으로 감싸준 한동에 감사하며, 이 글을 드립니다. 우연히 아침에 총장님의 메일을 받고, 이렇게라도 제가 느끼는 한동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다보니. 너무 두서없이 적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제게 마음의 고향 같은 곳. 포항시 북구 남송리 3번지. 한 · 동 · 대 · 학 · 교

그 곳에, 그리고 그곳을 위해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총장님, 교수님,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기분들께 항상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s*yi*s**i@hanmail.net

감사합니다. 이토록 감동적인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Why not change the world? 에 의심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마다 기도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가능하다는 믿음만 있었는데, 지금은 총장님,古박을용 교수님, 최유강 선배, 제 삶의 변환자(Transition Figure) 들께 배운대로 배워서 남주고, 사랑해주니 변화가 보이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는 모습이 늘 신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y**ng@ekic.co.kr

저는 청와대 특경경비지구를 사수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제1경비단에서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이제 군생활 반 정도 하였는데 학교가 많이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2년동안의 짧고도 긴 군생활 잘 마쳐서 한동으로 복학하는 그 날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저의 모교가 UN이 선정한 Top10에 포함되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총장님 사랑합니다.

***01**@naver.com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 안아 주시던 따뜻한 총장님!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똑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주신 하나님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한동인이 되었습니다. 총장님. 늘 감사합니다.

m**ei**@hanmail.net

이번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새로운 문을 열게 되어서 두려움도 있지만, 벽간 기대감이 먼저 옵니다. 2012년 좋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졸업생을 잊지 않고 챙겨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총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저희 부모님께서 한동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학부모 수련회도 1회부터 항상 출석하셨거든요.^^

ll@hanmail.net

항상 이렇게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학교를 다니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을 통해서 수 많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네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빨간 한동티셔츠를 입고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응원하시는 총장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um***@naver.com

갈대상자 책에서 총장님을 만나고 한동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꼭 한동대학교에 보내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두 아이에게 한동대 입학 을 허락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귀하신 종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s**b**c**ub*@gmail.com

잊지 않고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계속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열방을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늘 지금처럼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Red T-shirt가 너무 멋지십니다. ^^) Happy New Year~

f*@naver.com

세상과 다름을 추구하고 이를 창출해나가는 하나님의 대하 한동대학교를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 까지 한결같이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장님께서 18년 동안 쏟아내신 한동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저희 학생들도 총장님이 원하시고 꿈꾸셨던 정직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청년이 되어 거룩한 대한민국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 입니다.

e****z@naver.com

항상 마음속에 좋은 스승님으로 계셔주셔서 그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도 더욱 바람직하게 겸손하고 또 부지런하게 살아겠습니다.

is****g**@naver.com

김영길 총장님 편지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총장님의 높은 덕목과 역량, 그리고 리더쉽으로 한동대학교가 글로벌 대열에 서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모교 졸업생의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oil***g@posco.com

한동을 사랑하는 한동인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한동을 위하여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일이 주안에서 형통함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한동인으로서 총장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sun*9@hanmail.net

The Blessings of Peace, The Beauty of Hope, The Spirit of Love, The Comfort of Faith May these be your gifts this Christmas Season.

asi@hotmail.com

Merry Christmas To you to Mr President. We love you as well and God even more. Blessings.

hynn*@yahoo.fr

* 김영길 총장님께 배달된 학생들의 많은 편지들 중 일부를 발췌해 편집하였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차인표, 북한에 대해 관심과 기도를 나누다.

한동에 북한을 위한 특별한 일주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중보주간(이하 북중주)'으로, 한동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일주일 동안 북한을 위해 기도하자는 운동입니다. 북중주에는 북한 인권과 선교에 대한 강연회와 더불어, 합동 기도회, 자선콘서트, 다큐멘터리 방영, UN청원서명운동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 북한에 대한 강연회에 강사로 차인표씨가 오셔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를 후원자 분들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오지 못했던 차인표 씨

태어나 처음으로 강연을 맡아본다는 차인표씨는, 작년에도 북중주에 초대 되었으나 오지 못했던 이유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북한 동포들을 크게 도와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차마 강단에 설 자격이 없었다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차인표씨는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동시에 한동대 학생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차인표씨는 작년에는 강사의 자격으로, 북한에 대한 사명을 한동대 학생들과 현 세대들에게 떠미는 것이 너무 미안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볼 면목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기도의 힘

이어서 차인표 씨가 작년과 다르게 올해에는 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매일마다 기도하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차인표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올 한해 동안 매일마다 북한에 대



한 기도를 최소한 1분씩이라도 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매일마다 북한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마음과 관심을 북한으로 쏟을 수 있는 힘이 되며, 이 관심은 주변 환경이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 보세요. 북한을 위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북한을 위한 강연회에 올 수 있었고, 북한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잖아요.” 차인표씨는 기도를 통해 마음을 쏟는 것이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기도를 통해 바뀔 수 있어요. 아니, 바뀝니다.” 그러면서 차인표씨는 매일마다 1분씩이라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희망, 대학생

“한동대를 포함한 대학생들은 단순히 어려운 짐을 떠 맡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차인표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인표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올해 초 차인표씨는 ‘북한에 호소되는 동포들의 인권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순수한 마음에서의 호소문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경험했

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차인표씨는 자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성세대가 북한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영역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함부로 나서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은 달라요. 대학생의 진정성과 순수성으로는 대중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차인표씨는 대학생이 가지는 힘에 대해 말했습니다. 차인표씨는 대학생들의 관심이 대중을 움직일 수 있고, 대중의 움직임으로 북한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차인표씨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노래 ‘강남 스타일’을 예로 들면서 대중의 관심이 어떻게 큰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수의 대학생들이 진실되게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대중의 관심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다면 분명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차인표씨는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꾸준한 기도를 통한 회복

마지막으로 차인표씨는 한동인들에게 하루에 1분씩이라도 매일마다 기도 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차인표씨 자신을 포함한 기성 세대가 회개하여 단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북한의 인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차인표씨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강단에서 내려왔고, 이후에는 북한을 위한 기도회로 하루의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그 동안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북한에 대한 관심과 표현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강의였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시기가 아닌 무관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그동안 자신의 삶에 치여서 무관심했던 북한과 주위 이웃들을 바라보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북한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 합니다

제4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대회, 한동대가 휩쓸다

지난 9월 22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제4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대회'에 한동대학교 UIL(국제법, U.S. & International Law)* 학부 재학생으로 구성된 2개의 팀이 참가해 각각 2등과 3등을 차지해 이번 대회의 돌풍을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2등 팀의 김성균(UIL 06), 송영선(UIL 09) 학우와 3등 팀인 이창우(UIL 06), 정규진(UIL 06) 학우는 모두는 2011년 가을에 신설된 한동국제법학회의 회원으로 함께 공부한 지 1년 만에 이런 쾌거로 더욱 뜻 깊은 수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이 대회에는, 국내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번론서 심사를 통과한 총 8개팀(서강대, 숭실대, 이화여대, 한동대, 한양대)이 출전한 대회로 국내 유수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동대학교의 실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수상자 중 한명인 김성균 학우는 “무엇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며 운을 띄웠습니다. 또한 “준비 과정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지도를 담당해 주신 백은석 교수님, 실질적인 자문을 담당해 주신 원재천 교수님, 그리고 국제법률대학원의 Jimmy Kim 선배님 같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라는 감사의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국제인도법 모의재판대회'는 무력충돌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문제에 대한 법 적용을 놓고 변호인단과 검사인단간 논쟁을 통해 인도법(Humanitarian Law)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이며, 대한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주최하며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 UIL(미국 및 국제법, U.S. & International Law) 전공: 영어강의전공으로서 미국법과 국제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주로 영어사용권에서 대학원과정 이상의 전문적 심화학습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지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동에 온 선물, ‘나눔평봉필드’ 개장

한동대 인조잔디구장 개장식 가져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다운 잔디구장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따사로운 햇빛이 비치던 지난 10월 10일, 한동공동체는 인공잔디구장인 ‘나눔평봉필드’의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햇빛을 한껏 받아 푸르름을 뽐내는 인조잔디구장에는 김범일 이사장님, 김영길 총장님 외 다수의 교직원들, 그리고 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동안 한동의 모래 운동장은, 바람이 불 때는 모래바람으로 눈이 뜨개웠고 축구를 할 때는 학생들이 언제나 크게 다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딱딱했습니다. 총장님도 개장식 축사에서 인공잔디구장이 없었던 때를 떠올리셨습니다. “원래 이곳은 흙먼지가 날리던 곳입니다. 1997년 3월 7일, 바로 이 자리에서 개교식을 할 때부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이제 이곳이 아름다운 잔디로 채워지니 오늘은 정말 한동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김범일 이사장님 또한 기쁜 얼굴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청년이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입니다. 나눔평봉필드에서 열심히 뛰놀며, 하나님께서 주신 신체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한동 학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7월 초부터 총 3개월에 걸쳐 완공된 ‘나눔평봉필드’는 기부자인 ‘평봉’ 선생님의 호를 따서 지어졌습니다. 끝내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평봉 선생님의 부탁에 할 수없이 호를 따게 된 것이지요. 총 13억 2천여 만원이 투입된 공사대금은 평봉 선생님의 기부금과 학부 모님들의 오병이어 기부금, 기타 교비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새로 지어진 ‘나눔평봉필드’에는 축구장 1면, 농구장 1면, 농구·배구·족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구장 1면, 미식축구 골대 1세트, 육상트랙 3레인 등 많은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한동인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눔평봉필드’를 선물 받은 한동인들은 여러 운동과 각종 활동들을 하면서 많은 교제를 나누고 신체를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평소 운동장을 자주 이용하는 송영광 학우(경영경제 07)는 “축구를 할 때마다 부상당하는 친구들이 꼭 있었는데, 이제 부상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게 되어 좋아요”라며 기뻐했습니다.

‘나눔평봉필드’를 한동에 선물해주신 평봉 선생님과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후원자님들께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사회에 나가계신 선배님이 매주 찾아오는 수업이 있다고?

한동대 언론정보문화학부
'영상커뮤니케이션' 수업의 특별한 이야기

어둠이 깔린 지 오래인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동대 언론정보문화학부 4층 강의실, 학생들이 기대에 가득 찬 눈으로 강사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드디어 강사님이 입장하십니다. 그런데 들어오시는 강사님이 매우 젊어 보입니다. 심지어 몇몇 학생들과는 안면이 있는 듯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강의실 안을 둘러보는 강사님의 눈에는 마치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 애뜻해하는 촉촉함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들의 귀에는 'OO개론', 'OO학'이라는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는 어떠하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같은 생생한 경험담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수업은 바로 언론정보문화학부의 영상커뮤니케이션(이하 영컴)이라는 수업입니다.

영컴은 이제 곧 사회로 나가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언론정보문화학부의 강두필 교수님이 3년 전부터 꾸려 오신 수업입니다. 실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수업은 독창적인 자기

소개서와 이력서 만들기를 기본 목표로 삼고 이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각각 테스트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동대 언론정보문화학부 출신 선배들을 매주 초청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실제 현장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학생들이 나아갈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수업을 듣는 신성찬(언론정보 08) 학우는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실제로 계신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매우 명확해졌어요" 라 말하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양인철(언론정보 06) 학우는 "평소 관심 없던 분야도 선배를 통해 실제 모습을 알고 나니 오히려 나에게 맞는 진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 전하며 영컴 수업의 효과를 소개했습니다.

수업에 강사로 오는 선배들의 직장을 살펴보면 신문사, 영화제작사, NGO, 게임회사, 연예기획사 등 사회 곳곳에서 영상제작이나 기획 등의 역할을 맡



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에 참여하는 선배들의 수는 무려 8~10명이나 됩니다.

각 선배들의 수업 후 매주 주어지는 과제 또한 이 수업의 묘미입니다. 각 과제들은 해당 선배들의 직업 성격에 맞물려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선배의 '자신을 소개하는 1분 영상 만들기', 연예기획사 전략분석팀에서 일하는 선배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 도표 짜오기', 게임회사에서 일하는 선배의 '나의 회사가 만든 게임을 직접 하고, 비평문 제출하기' 등이 차례로 나옵니다. 또한 이후 꼼꼼한 평가와 피드백 또한 빠지지 않습니다.

이 수업을 계획하게 된 계기에 대해 강두필 교수님은 "수업을 개설하기 전부터 종종 졸업생을 불러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재학생들이 졸업

생 이야기에 굉장한 몰입도를 보여줬고,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활약 중인 선배들이 사회에 나가려는 후배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제대로 마련해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수업을 위해 한동대를 방문한 졸업생들에게 "직장 생활 중 하루 휴가 내기도 힘든데 와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과제를 그토록 열심히 채점해 주는 것을 보고 저 역시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수업을 꾸려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선배와 후배 간의 끈끈한 커뮤니케이션을 꾸려나가는 영컴 수업. 공부의 '깊이' 못지않게 공부의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아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소중한 수업이었습니다.

기부에서 얻은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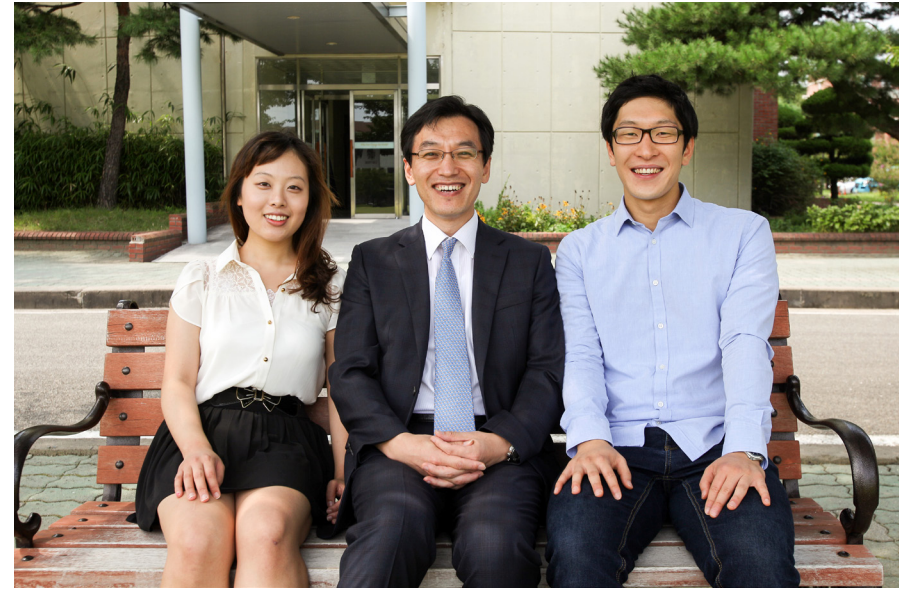
한국 경제신문 대학(원)생 경제논문 공모전 1위 부상 기부

한동에 아름다운 기부가 또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한동대 류재현(경영경제 05) 학생과 졸업한 석희경(07) 동문이 공모전에서 받은 부상 200만원을 전액 한동대에 기부한 것입니다. '제10회 한국경제신문 대학(원)생 경제논문 공모전'에서 대학원생들을 제치고 금융부문 1위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 기부까지 해서 더욱 빛이 났습니다.

올해 초 경영경제학부 양오석 교수님의 지도아래에 있는 글로벌경영전략연구회*에서 만난 두 학우는, 교수님의 지도아래 경영과 경제에 관한 논문을 올해 초부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두 학우는 공모전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던 중 양오석 교수님의 공모전 참가 제의로 학생들은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전에 대한 어떠한 생각보다도, 교수님과 학생들은 '상금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약속을 가장 먼저 하고 공모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나고, 가을학기에 한동에는 경제논문 공모전 금융부문에서 1위를 하였다는 소식과 함께 상금 200만원을 전액 한동대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는 소식이 올랐습니다. 류재현 학우는 "우수상도, 상금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문득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니 처음에는 기부하기 쉽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다고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생각하고는 기부하기로 마음을 다시 잡았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기부하기를 잘했어요. 이 계기를 통해서 기부와 성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류재현 학우는 취업을 위해 공부하기보다는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가치를 위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류재현 학우와 석희경 동문을 이끈 양오석 교수님은 "학생들이 상금보다 더 귀중한 가치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글로벌경영전략연구회를 통해 학생들이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금 모두를 기부함으로써,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전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의 소중한 가치, '공부해서 남주자'를 실천하는 학생들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비출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글로벌경영전략연구회: 경영경제학부 양오석 교수의 지도아래 학회로, 경제논문을 통한 연구와 실무를 위주로 하는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정직’을 지켜주세요

박웅택 님의 장학회 설립

한동에 아름다운 장학회가 하나 더 설립되었습니다. 박웅택 님의 기부로 만들어진 ‘심농 장학회’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심농’은 장학회를 설립하신 박웅택 님의 아호로, ‘마음 심’과 ‘농사 농’, 즉 ‘마음을 다해 정직하게 농사를 하자’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장학회의 설립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박웅택 님은 국민교육헌장 전문에 있는 ‘우리의 처지를 약진으로 발판 삼아’라는 구절을 언급하셨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덧붙이셨지요. 왜냐하면 불우했던 시절, 이 구절을 보며 ‘본인의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도, 본인의 어려운 형편을 극복하는 데에 이 구절은 많은 힘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박웅택 님은 한동대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품고 싶어 하십니다.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약진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길 원한다는 소망에 장학회를 설립하시게 된 것이지요.



사실 포항 지역에 살고 있는 박웅택 님은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의 여러 경험을 통해 ‘정직한 방법과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동대에 장학회를 설립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도우려 하신 것입니다.

또한 박웅택 님은 “한동대가 포항지역에 좀 더 좋은 역할을 맡아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박웅택 님은 한동대에 재학중인 두 학생의 등록금을 부담해 주고 계시는데, 이 두 학생을 만나서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박웅택 님의 바램처럼, 한동대가 ‘정직한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글로벌 리더가 따로 있나요?

지역사회를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글로벌 라이프'

한동대에서는 '배워서 남 주자'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매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대 학생 약 2,000명이 참여하는 사회봉사 교과목부터 시작해서, 한동대 고유의 '팀 제도'를 중심으로 약 97개의 팀들이 여러 프로젝트를 기획 및 실행하는 것까지, 매년 한동대의 교직원 및 학생들은 여러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라이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글로벌 라이프 프로젝트'를 통하여 한동대 팀들은 각각의 재능과 노력을 통해서 포항의 이웃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는, ▲포항의 각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수요가 없는 아동청소년 도서를 기증받아, 포항의 지역 아동센터에 다시 배부하는 '다리'의 역할을 한 '희

망도서관' 프로젝트 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조가 되어 2~3km 길이의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는 '사랑의 마라톤' 프로젝트 팀, ▲자선 콘서트를 통하여 포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마련해 준 '서당골 밴드' 프로젝트 팀 등, 가지각색의 사랑을 전하는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게 재능을!

수많은 글로벌 라이프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특별히 '다문화 가정'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마음을 모았던 '더불어 함께'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프로젝트는 포항시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학부모들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2010년에 생긴 프로젝트입니다. 2012년에도 '더불어 함께' 프로젝트가 이어져서, '드림 메이커'라는 이름

으로 1박 2일간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드림 메이커' 프로젝트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한동대 학생들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과 재능을 공유하고자 기획되었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 총 21명이 참가하여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학생은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밴드 동아리 학생은 음악교실 프로그램을, ▲디자인학과 학생은 미술교실을, ▲법학부 학생은 토론을, ▲생명과학부 학생은 의료에 관한 교육 등을 캠프 참가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

녀들에게 '드림 메이커' 캠프는 다양한 재능을 체험하며 자신의 재능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동대 학생들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각 자리에서의 섬김을 통해 포항 지역에 선한 영향을 행함과 더불어서, 개인적으로도 인성과 공동체 정신, 리더십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배워서 남 주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글로벌 라이프 프로젝트' 8개팀 선정 프로그램 소개

팀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소개
지승원교수팀	사랑의 마라톤	장애인과 한명의 비장애인이 한조가 되어 약 2~3km되는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며 중간에 벽화나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함
김성욱교수팀	You're Precious	기초수급자 가정의 자녀들과의 멘토십 1박2일 캠프를 진행함
서병선교수팀	Dream Maker	포항시 다문화 가정의 자녀 대상 1박2일 캠프를 진행함
현창기교수팀	하이라이트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꿈'을 주제로 한 공연과 전시회를 함께 기획하고 공연함
김윤규교수팀	서당골밴드	포항중학교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을 위한 자선콘서트 주최함
민성아교수팀	소통리스트	소통리스트는 '소통+Bucket List'의 줄임말로 작게는 한동대 학교 공동체, 크게는 포항 지역사회 구성원의 소통을 위한 전시회 진행함
유기선교수팀	희망의 도서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등에게 도서 지원함
마민호교수팀	주인공이 된 아이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외국인팀과 함께 영어로 운동회를 진행함으로써 아동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

■ 글로벌 라이프 프로젝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봉사를 실천하고자 희망하는 학생단체 및 개인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돌아온 딸을 향해 달려와 주신 하나님

한동 나눔 간증 공모전 양은주(GLS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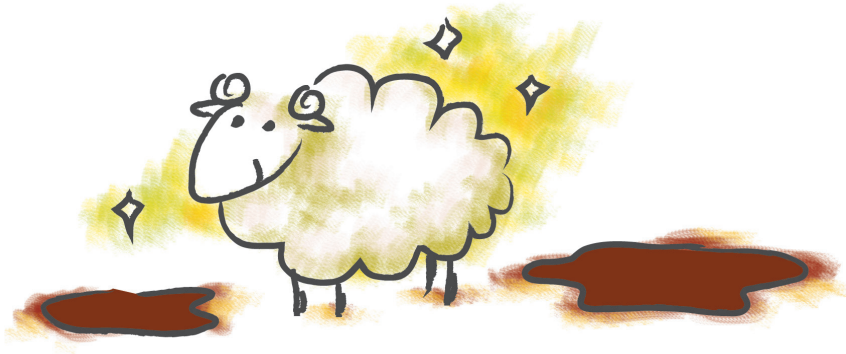
올해 고난주간은 제게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문득 저는 과거, 하나님을 모르던 그 시절에 느꼈던 절망감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둠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정말 빛 가운데로 건져주셨습니다. 지금 이 한동에서 하나님의 너무도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신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마냥 행복한 막내로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고 그 이후 가정 상황은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언니와 자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매일 아침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학교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도 몇 번 받았지만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의한 만성 편두통'으로만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다 할 병명도 없는 병으로,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 삶을 구원할 수 없어 보였고 모든 이들이 저를 보며 '가망 없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상처로 뒹뒹 뭉쳐진 인생이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더 이상 가라앉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어찌면 제게는 최선이었습니다. 빗쟁이들은 끊임없이 집으로 찾아왔고, 딸의 장기 병절, 그리고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해 오시던 어머니의 건강 악화는 우리 가족으로 하여금 대상도 모르는 백기를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당신께서 죽으실 각오로 두 딸을 교회에 데려다 놓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저희 두 딸을 데리고 처음 교회에 나가셨던 그 날 어머니는, 하나님의 장기간의 초청에 응하시기로 합니다. 어머니의 그 용기로 저희 가족은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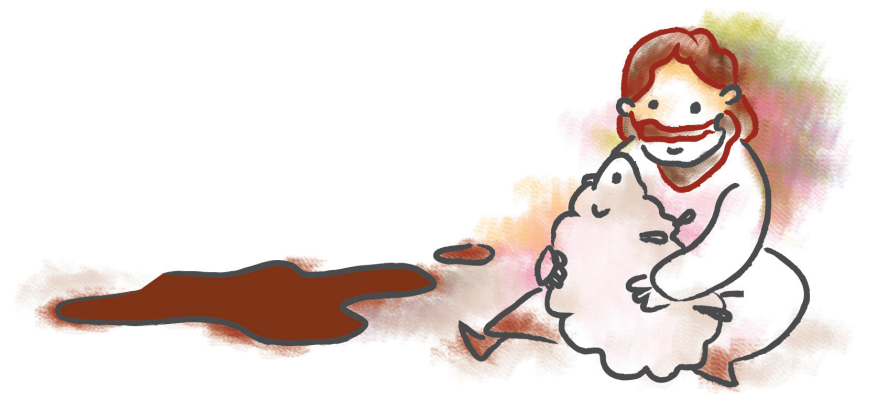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당장 크게 달라지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빛에 시달리고 어려움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극심한 어지럼증으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시기도 했고 가정 경제는 법원에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 달라진 것은 '아빠'라는 존재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녁 9시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눈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치유해 나가셨습니다. 부족하고 서툰 제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딸의 바닥까지 낮아졌던 자존감을 세우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채워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삶의 아픈 과거,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얼룩진 과거들을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구체적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저희를 최고의 것으로 먹이셨고 최고의 것으로 입히셨으며 집 없이 거리로 내쫓겨야 했을 상황에서 들어 올리셔서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겨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평생 바랐지만 불가능하다고 단념했던 치아교정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장학재단을 통해 무료치아교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매 순간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분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학생의 학업'에 충실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런 딸에게 아버지께서는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저를 회복시키셨고 그 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개근으로 건강하게 졸업하게 하였습니다.



“은주야, 아무도 기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은 때에 기도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야 한동이야.”

먼저 한동을 만난 것은 언니였습니다. 여호와와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주의 도를 행하는 자,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한동인인 언니는 이러한 삶을 위해 몸부림 치고 있었고, 저 또한 언니를 따라 한동으로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결핍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잊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이고, 모든 것 위에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제 아버지로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를 그 진흙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씻기시고 새 옷을 입히신 하나님, 돌아온 탕자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친히 달려와 주셔서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한 삶이라고 포기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주셔서 '아빠'라고 부르지만 하면 기뻐하시고 또 중심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은주 (GLS 12)

*본 간증문은 본인의 허락 하에 재편집되었습니다. 전체 간증문은 발전기금 홈페이지 감사의 글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지에 묻어난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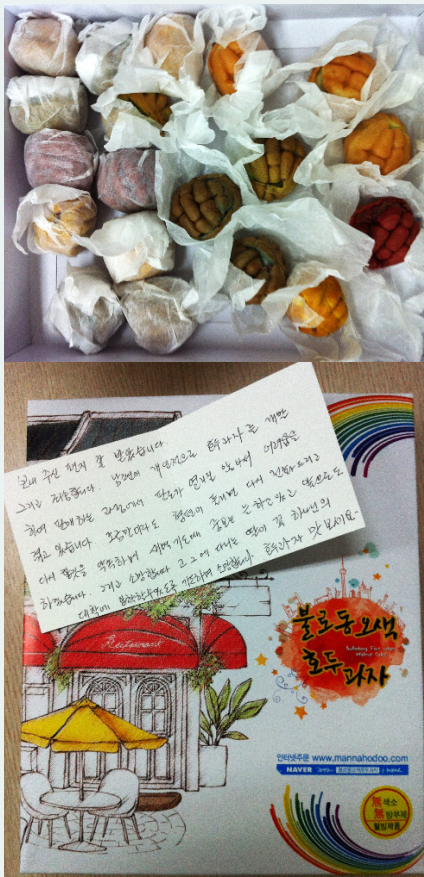
한동대에 배달된 오색 호두과자 이야기

2012년 8월 30일

더위 속 어느 날, 한동대 대외협력팀으로 뜻밖의 소포가 배달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된 소포 안에는 오색의 호두과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손으로 쓰여진 카드가 담겨있었습니다. 그 카드를 제일 먼저 열어 본 한 교직원 선생님은, 카드를 다 읽고 차마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반응을 지켜 본 주위 사람들 모두 카드를 돌아가며 읽었고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카드에는 갈대상자 후원자님께서 더 이상 후원을 할 수 없어서 죄송하다는 글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 분이 오색 호두과자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워져서 더 이상은 후원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다시 후원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교직원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후원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더 후원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후원자님의 글 앞에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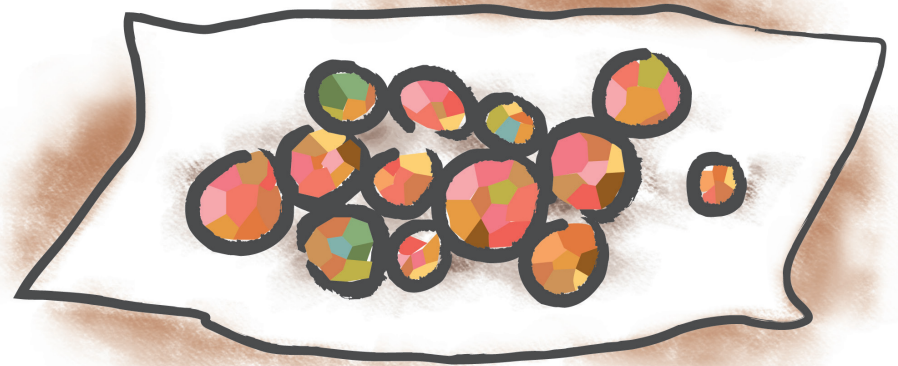
그리고 후원자님은 물질적 후원 대신, 매일의 새벽



기도 시간에 한동대를 위해 지금처럼 늘 중보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귀중한 마음에 그 자리에 있던 선생님들은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배송지 경로를 찾아 조회를 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여기저기 전화를 해 보았지만 이미 이사를 가셨는지 그 주소와 연락처를 통해서 후원자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동대를 기억해주시는 것, 기도로 늘 함께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데, 여기서 후원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까지 해주시니 오히려 교직원의 마음은 숙연해졌습니다.

카드의 마지막은 고등학교 2학년인 후원자님의 딸이 하나님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소망한다는 글로 마무리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말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후원자님의 딸이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에 입학 할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한동이 후원자님의 소망에 맞는 하나님의 대학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후원자님의 따님이 하나님의 길 안에서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따뜻한 마음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후원자님,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후원자님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2. 7. 1. ~ 2012. 12. 31. 신규후원자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강순신	노동민	오경숙	이영애	정준아	우림교회
강재현	노영현	오광수	이옥자	조경숙	진리등대교회
강현전	류연호	오지숙	이유진	조경옥	청운교회
고병웅	류예현	오진배	이응빈	조대근	(주)나임건축사사무소
공정일	맘앤썸	유신애	이인선	조두만	(주)신세계푸드
국현승	박기현	유은주	이재익	조명희	(주)엑소더스어학원
권예나	박성주	유지형	이정옥	조윤희	(주)하나은행 포항북지점
권은애	박수용	유하나	이정희	조정희	삼금공업(주)
김민경	박용곤	유한식	이종찬	조호민	경남종합사회복지관
김보람	박윤	윤대관	이진숙	주선순	경원문화재단
김보영	박종문	윤대준	이종명	주용택	사대부고10회 동창회
김석진	박하은	윤순애	이태현	지명희	성혜장학회
김선화	박혜연	윤자환	이한란	진가희	지에프(GF)
김성은	백시은	윤현숙	임춘희	최갑순	창성장학회
김성훈	변진선	이경순	임태훈	최은주	향기내는사람들
김수현	서영찬	이길	장현	하현주	현대공영
김순애	서윤진	이나라	장혜영	하혜숙	Good of All
김승연	송강민	이만희	전다윗	한길환	
김영만	송찬용	이명춘	전우정	한정옥	신규후원자 140명
김영심	신원섭	이명희	정강아	홍호영	오병이어 418명
김영혜	안모세	이상복	정경순	황선미	익명 후원자 37명
김옥희	안재호	이수진	정경완	황용숙	
김은혜	양순석	이승민	정상식	황충열	
김장식	양오석	이승재	정세인		
김종석	양은주	이영광	정시로		

갈대상자가 없었다면 한동도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갈대상자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없었을 것이고, 한동에게 갈대상자가 없었다면, 지금의 한동은 없을 것입니다.

한동은 갈대상자 후원자와 함께

그 동안 9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4천명의 재학생은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킬 인재"로 양성되고 있습니다.

더 큰 사명을 이뤄가기 위해 한동에는 더 많은 갈대상자 후원자가 꼭! 필요합니다.

2013 갈대상자 다시 엮기 캠페인 3가지

1 갈대상자 더 크게! **2** 갈대상자 하나 더! **3** 갈대상자를 문자로!

- 참여방법 : ① 전화 ② 홈페이지 ③ 후원신청엽서
- 일시후원 : 하나 505-094401-00104 국민 640-01-0001-877 (예금주: 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홍보자료 요청 및 후원문의 : T. 054-260-1063~4 H. <http://sarang.handong.edu>
-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게재)

세상을 바꾸는 한동인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2013년 한동인 이야기 영상

- ① QR코드로 보기 (오른쪽 QR이미지 이용)
- ② www.handong.edu에서 보기



전세계 청년들의 꿈을
네트워킹하는 최영환 동문



소외된 이웃과 꿈을 나누는
임정택 동문



법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정민정 동문

1 갈대상자 더 크게!

하나님의 꿈은 한동보다 크십니다!
한동은 꿈꾸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하나님께서서는 이 꿈을 이루시려고 많은 갈대상자 후원자들과 함께
한동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동은 완성되지 않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동과 함께 하나님의 산 역사를 계속 이어갈
갈대상자 후원자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동이 기다리는 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금 증액으로 한동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후원금 증액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한동의 변화 (1년 후원시)

매달 1만원이면,



학술정보관 학습용 도서 다섯 권

매달 3만원이면,



강의실 책상, 의자 한세트

매달 5만원이면,



저소득가정 재학생 1, 2학기 점심 급식

매달 10만원이면,



개발도상국 외국인 유학생 1년 기숙사비

2 갈대상자 하나 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1995년부터 한동이 걸어온 길은 좁은 길이였습니다.
그러나, 한동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후원자님이 함께 하시기에 꾸준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동은 아직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동역자가 늘어날수록 한동은 더 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갈대상자 후원을 추천해 주세요

3 갈대상자를 문자로!

알고 계세요?
문자로도 후원이 가능합니다.

■ 참여방법 (문자 후원 한 건당 10,000원)

1. #89491995 로 '갈대상자' 입력 후 문자발송
2. 후원안내문자 수신
3. '동의 주민번호' 입력 후, 문자재발송
4. 최종 후원확인문자 수신
5. 문자후원 완료!





sarang.handong.edu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한동은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